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10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Taipei항 개발로 대만 기존 항만판도 변화 조짐 .....	2
□ 이집트 대통령, Port Said항 Suez 「컨」터미널 방문 격려 .....	4
□ 예멘 Aden항 「컨」터미널 확장 추진 .....	5
□ APM사, 미국 Coos Bay항에 「컨」터미널 건설 검토 .....	6

## □ Taipei항 개발로 대만 기존 항만판도 변화 조짐

- 타이완 섬 북부의 Taipei항은 지금까지 Keelung항(Taipei항 동쪽 63km 위치)의 보조항으로서 연안화물을 주로 취급하여 왔으나, 2009.3.9 Taipei Port Container Terminal(TPCT)의 개장 이후 기존의 대만 컨테이너 항만간 판도가 변화될 조짐
- 2008년 대만 3대 컨테이너 항만의 처리물동량은 ❶ Kaohsiung항 9,676,554 TEU, ❷ Keelung항 2,055,258 TEU, ❸ Taichung항 1,250,000 TEU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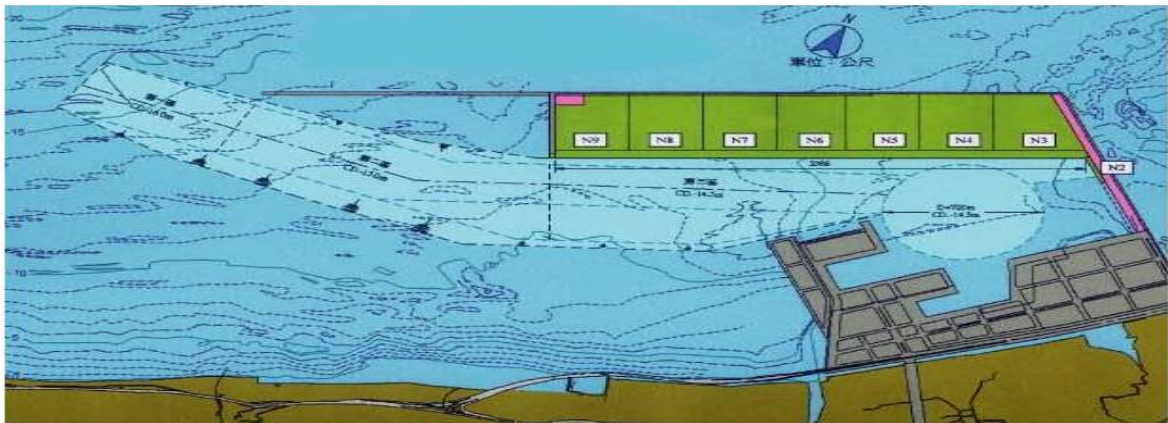
### ○ Taipei Port Container Terminal(TPCT) 현황

- 2003.7.25 Taipei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설립
- 대만의 3대 글로벌 선사인 Evergreen(50%), Wan Hai(40%) 및 Yang Ming(10%)이 출자
  - ※ Evergreen은 622,695 TEU(174척), Wah Hai는 90,000 TEU(66척), Yang Ming은 323,816 TEU(83척)의 컨테이너 선대를 각각 보유
- 대만정부로부터 50년 BOT(Build Operate Transfer) 조건으로 사업권 획득
- 현재 운영 중인 North Pier 3/4 선석은 717m 길이(수심 15.5m~16.1m)에 연간 110만 TEU 처리능력 보유, Taipei 시내에서 20km에 위치



## ○ 전체 개발계획 및 선석별 개장예정 일정

- 전체 7선석, 총사업비 6억불 투자, 2014년 7선석(선석길이 2,367m) 전부 완공 시에는 최대 12,0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이 접안 가능한 연간 400만 TEU의 터미널 처리능력 확보



- N3~N9의 7선석 중 N3과 N4 선석은 현재 운영 중이며 N5 선석은 2010.6, N6 선석은 2010.12 개장 예정이며 N7~N9 선석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



## ○ TPCT 개장과 타 항만의 영향

- 2009.7 TPCT의 최대 주주사인 Evergreen은 컨테이너선 거점항만을 종전의 Keelung항에서 TPCT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본사 사무실도 Taipei항으로 이전
- 종전 Keelung항에서 출발하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로의 출발지를 TPCT로 변경
- TPCT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Taipei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의 70%는 Kaohsiung항에서, 나머지 30% 중 Keelung항 및 Taichung항에서 각각 전이 처리된 물량이 15% 정도 인 것으로 파악

자료 : Taipei Port Container Storage and Transportation Center, Steel Guru 2009.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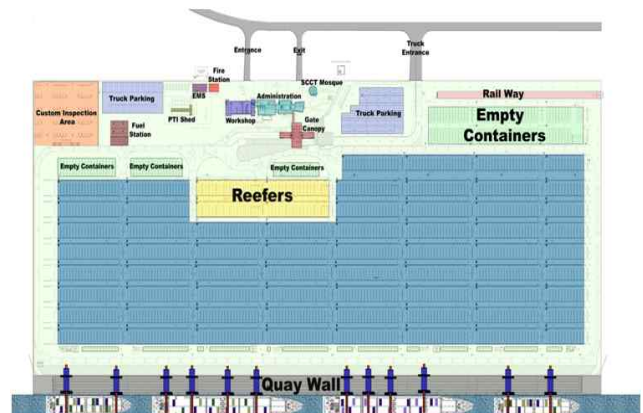
## □ 이집트 대통령, Port Said항 Suez 「컨」터미널 방문 격려

- 2009.10.4 이집트의 Hosny Mubarak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 최북단 지중해 관문에 위치한 이집트 최대의 항만인 Port Said항의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SCCT)을 방문하여 터미널 운영 및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SCCT) 현황 및 개발계획

- 4선석, 길이 1,200m(수심 16.5m), 연간 처리능력 255만 TEU, 2004년 개장
-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40만 TEU를 처리, 2009년에도 13% 증가 전망
- SCCT는 1999년 이집트 정부와 49년간의 운영계약(Concession) 체결
- SCCT의 지분은 APM 터미널이 55%, COSCO Pacific 20%, Suez Canal Authority 10%, 이집트국립은행 5%, 민간 투자자가 기타 10%를 소유
-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단계 공사 진행 중, 준공시에는 8선석 2,400m의 시설과 연간 540만 TEU의 처리능력을 확보한 단일 터미널 중에는 지중해 최대의 터미널로 부상 전망



자료 : Port Said Port Authority,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 Lloyd's List 2009.10.23, Seatrade Asia 2009.10.12

## □ 예멘 Aden항 「컨」터미널 확장 추진

-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예멘의 Aden항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간선향로의 길목에 위치
  - 최근 이곳 Aden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 출몰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



### ○ Aden항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 Aden Container Terminal(ACT)과 Ma'alla Terminal의 2개 터미널 운영 중
- ACT는 2선석 700m(수심 16m), Ma'alla Terminal은 2선석 188m(수심 11m)
  - 2008년에 492,313 TEU 처리(2007년, 503,325 TEU), 2009년 39만 TEU 전망
- Yemen Gulf of Aden Ports Corp과 DP World의 합작사인 Dubai and Aden Port Development사가 2개 터미널 모두를 운영



### ○ Aden항의 터미널 확장은 기존 ACT의 컨테이너 선석을 400m 연장하는 프로젝트

- 2010년 중 터미널 확장 설계 및 국제입찰 실시, 2013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

자료 : Yemen Gulf of Aden Ports Corp, Global Arab Network 2009.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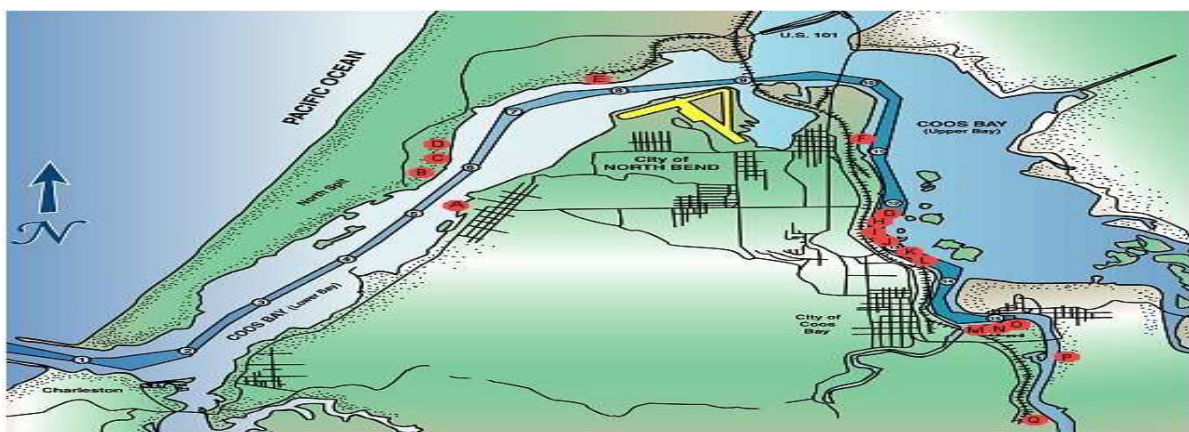


## □ APM사, 미국 Coos Bay항에 「컨」터미널 건설 검토

- 미국 Oregon주 남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Coos Bay항은 현재는 연간 1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소규모 항만이나, 최근 APM 터미널사가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관심항만으로 부상



- Coos Bay항은 현재 일반화물선 및 여객선 등이 입출항, 컨테이너는 미처리
  - Oregon주의 컨테이너는 모두 Coos Bay항 북쪽의 Portland항에서 처리
  - Portland항은 2008년에 245,459 TEU를 처리(2007년 260,128 TEU)
- APM 터미널사의 Coos Bay항 터미널 사업 추진 동향
  - Coos Bay항에 연간 200만 TEU 처리능력의 컨테이너터미널을 신규 건설
  - 총사업비는 4억불 내지 7억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APM사는 Coos Bay항을 철도망을 이용한 미국 서부의 전략항만으로 개발할 구상
  - 아직까지 항만당국 및 APM사 모두 구체적인 사업내용 언급은 자제



자료 : Oregon International Port of Coos Bay, Daily JOC Oregon 2009.10.14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